

한국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형성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

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언론학, 문화연구 박사)

연구를 시작한 계기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지도자·지도 세력의 입장에서 포퓰리즘은 “고정적인 지지기반을 넘어 폭넓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스타일” 이자 정치 전략이다.
- 인민의 입장에서서는 포퓰리즘이란 기성정치와 엘리트를 비판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운동이다. 정당과 의회 등의 정치적 제도, 경제 분야, 미디어 등을 장악한 엘리트들에 대한 민중적 불만이 정치운동의 형태로 발현되는 현상인 것이다.
-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적 현상으로서의 노무현-문재인 20년, 그 특징
 - 노사모, 문파 등으로 이어진 비계급적 지지 세력의 존재.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적 경향.
 - 국정농단과 촛불 국면에는 본격적인 포퓰리즘적 국면이 형성. 정치적 인물(문재인)을 중심으로
 - 미디어의 권력화와 정파화, 대중의 뉴미디어 활용 정치.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의 원인 : 헤게모니적 위기란 무엇인가?

- 헤게모니적 질서에게 있어 위기란 근본적인 요소.
- 헤게모니적 질서란 언제나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탈구와 재구성에도 존재론적으로 열려있다.
- 위기는 기존 시스템 내부의 대안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축적되고,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위협받아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문제시되는 상황
- 위기 개념은 일정 시기 동안 유지된 헤게모니적 체제와 질서가 더 이상 존속 불가능하여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때.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 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공백기간에 매우 다양한 병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Gramsci, 1971/2005: 327)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위기 : 87과 97의 위기

- 87체제, 즉 87년의 민주화 이후로 구축된 헌정 체제의 위기. 양당 체제와 권력화된 미디어 체제에서 민중의 정치적 의사가 충분히 대의되지 않았던 상황.
- 97체제, 즉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위기란 지배적 블록이 구축한 헤게모니적 질서, 즉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사회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말과 2010년대를 거치며 가시화된 전세계적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나 있었으나, 양극화 문제 등 분배의 문제와 세대와 젠더를 가로지르는 인정의 문제가 30여년의 시간 속에 심화되었다.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

정치의 미디어화 Mediatization of Politics

- 미디어화 개념에 따르면 미디어는 일상생활과 사회·문화 전 영역의 사회적 구성에 점차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모든 사회적 과정과 관계의 근본적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주체성과 인간 관계와 같은 일상의 가장 내밀한 차원에까지 투입하여 이를 재구성해내는 것.
- 정치 미디어화의 결과 : 미디어화미디어 포퓰리즘 Media Populism
 - 1) 첫째, 포퓰리즘은 미디어의 상업화에 가장 잘 알맞는 정치적 담론의 형태이다. 미디어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주류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구어적·감정적·논쟁적·흑백논리적·드라마적·스펙타클적·개인적 담론 스타일을 차용한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둘째, 기존 질서와 제도를 우회하여 직접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전략과 정치적 영역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는 정치의 미디어화 경향이 상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 3) 셋째, 미디어가 정치적 질서와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는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그 또한 하나의 제도로서 규칙을 가지는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의 제약까지도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와 미디어 포퓰리즘이 가지는 특징
 - 제도권 언론(신문과 방송)의 권력화, 보수적 편향화, 플레이어화
 - 오락화와 셀러브리티화 : <나꼼수>와 종편
 - 퍼스널 미디어와 팬덤적 대중 세력의 적극적 참여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

- 정치의 미디어화에 대한 헤게모니적 접근

- 1) 미디어화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헤게모니 정치의 세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 2) 정치의 미디어화에 따라 헤게모니 정치가 미디어-정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신문과 방송등 제도화된 미디어와, 미디어를 매개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 세력, 그리고 미디어화된 정치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당과 시민운동세력 등의 전통적인 세력들이 중요한 미디어-정치 행위자가 된다.
- 3) 정치의 미디어화에 따라 미디어 논리, 셀러브리티 등 미디어적인 요소들이 헤게모니 정치 행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과 동시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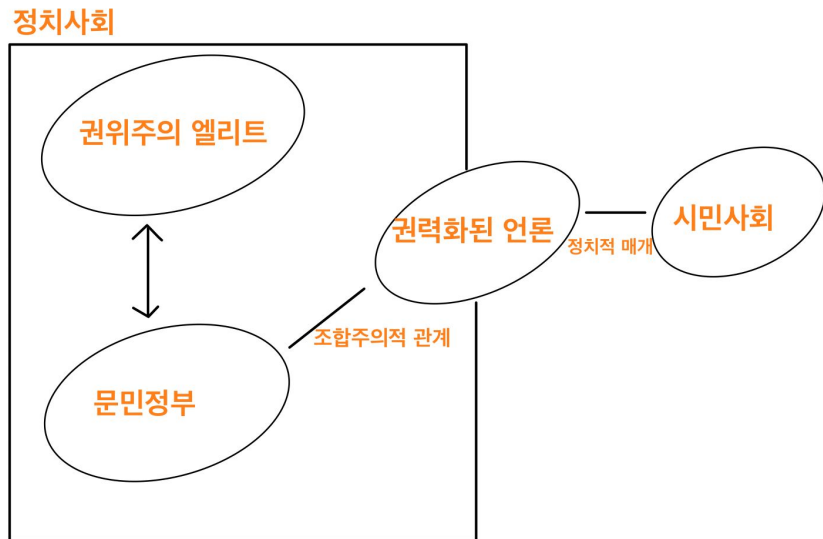
정치의 미디어화 Mediatization of Politics

- 정치의 셀러브리티화와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Celebrity Politization & Celebrity Populism
 - 셀러브리티는 팬덤적 주체들의 자기 정체화 공간.
 - 정치의 미디어화의 한 양상으로서의 정치의 셀러브리티화의 핵심은 정치의 개별화, 사사화, 감정화, 드라마화.
 -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의 결과물이 곧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치적 행위자들과 세력들은 전통적 미디어·뉴미디어와의 상호 투쟁적·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셀러브리티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적 현실과 의제를 두고 각축을 벌임.
 -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양상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새롭게 정치적 투쟁의 장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한 대중 세력의 변화된 위상.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

1. 문민정부 시기 : 미디어의 자율화와 권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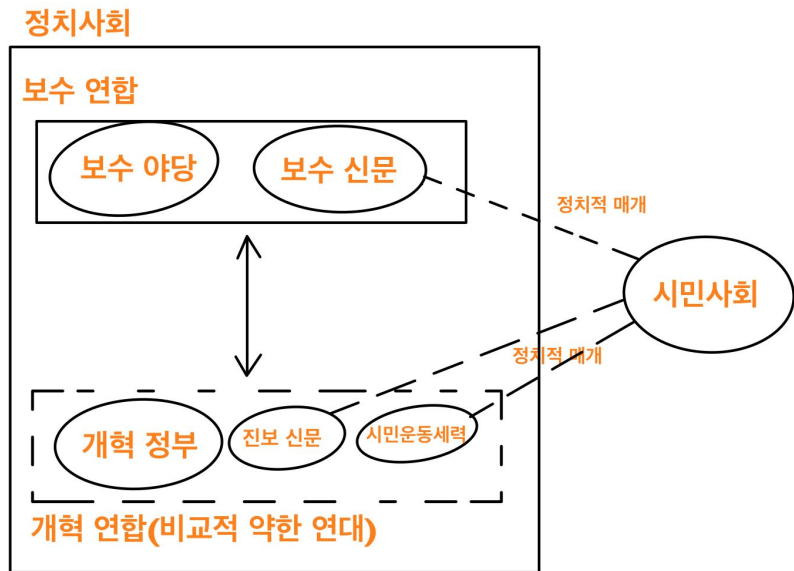
- 새롭게 권력을 잡은 문민정부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지배블록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과 정부를 매개해줄 언론과 협력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는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떠오르게 됨.
-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언론은 지배블록에게 종속되던 위치에서 지배블록의 일원으로서 여타의 정치적인 그룹들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게 됨. 조합주의적 관계.
-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얻은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하위 조직으로서 발전 국가를 중심으로 기능하는 발전주의 저널리즘 실천을 오랫동안 이어오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지배블록 내에서의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기존의 보수적 편향성을 지속시켜야할 상황에 처해있었음.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

2. 국민의 정부 시기 : 미디어의 정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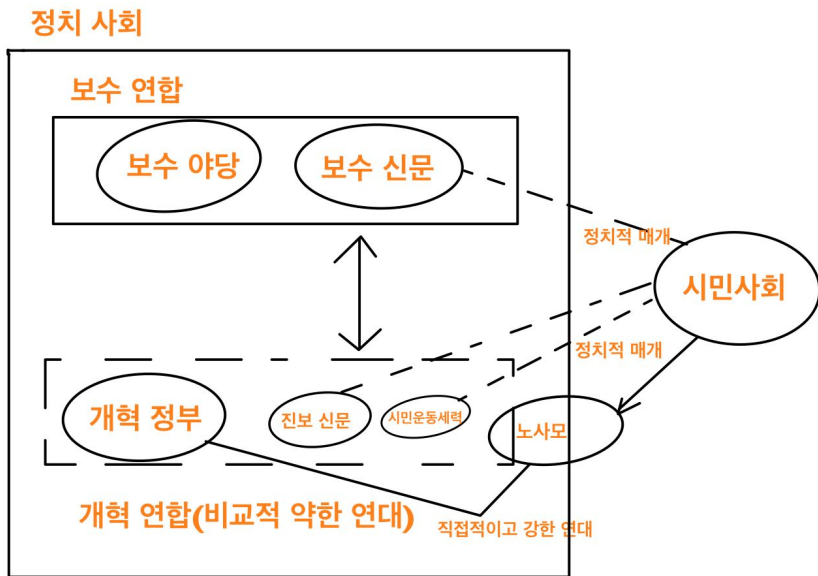
- 문민정부 시기까지 이어지던 지배블록 내의 정부와 보수 언론의 협력적·비적대적인 조합주의적 관계는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난 국민의 정부 시기에 지배블록이 양분화 되면서 깨어지기 시작. 국민의 정부가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 등에 대해 보수 언론은 강하게 반발.
- 이 시기로부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그룹과 권위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등이 연합한 보수적 그룹 간 대결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미디어의 정치병행성이 커지기 시작.
-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대결 구도를 강하게 규정하게 될 '개혁과 보수' 사이의 적대 전선은 보수 언론에 대한 개혁 시도와 보수 언론의 반발을 계기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미디어화된 정치적 대결의 양상을 띠.
- 이후의 시민사회의 대중 세력과 대안 미디어들의 실천 또한 이러한 대결구도 안으로 수렴시키는 효과를 발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

3. 참여정부 시기 : 미디어 포퓰리즘의 촉발

- 참여정부와 보수 신문 사이의 '언론전쟁' 발발.
- 참여정부와 보수 신문 모두 시민사회의 여론을 내기물로 삼아 지지 집단을 규합함으로써 미디어 포퓰리즘적 대결을 촉발. 미디어는 정치화를 넘어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함.
- 반면, 대통령과 직접적이고 강한 연대 관계를 맺는 대중 분파로서의 노사모가 등장. '비판적 지지'를 견지했고, 정국을 좌우할 정도로 세가 크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박해자'로서의 노무현의 이미지와 절합되며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단초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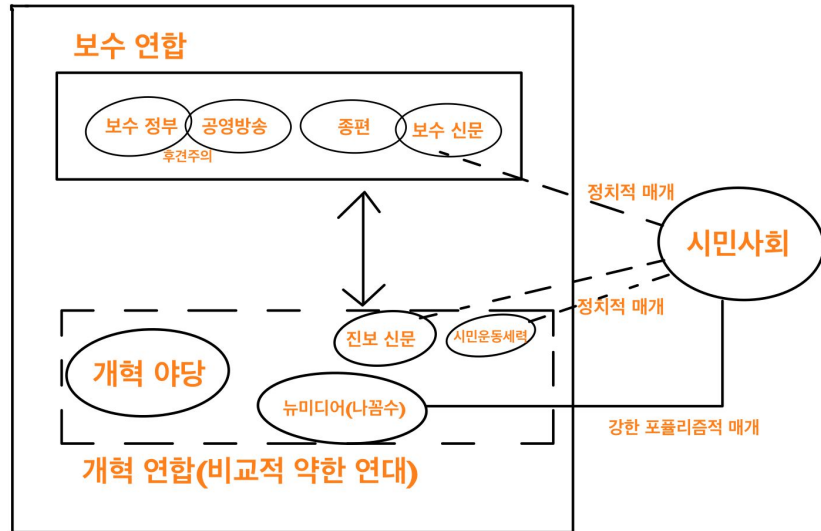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

4. 보수 재집권기 : 미디어 포퓰리즘과 정치병행성의 강화

- 보수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후견주의 강화와 종편 출범 허용.
-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들을 통해 통제하려 시도(미네르바 사건 등).
- 반대급부로 인기를 얻은 <나꼼수>는 기존의 제도적 미디어의 영향력을 우회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발휘. 나아가 노무현에 대한 애도의 정서를 중심으로하여 많은 시민사회 주체들의 정치적인 인식을 포퓰리즘적으로 구성해내는 효과도 창출.

정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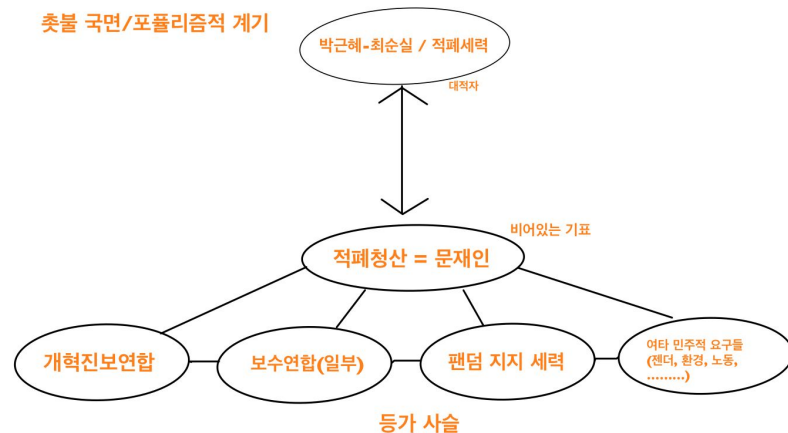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문재인이라는 기표와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1. 촛불 국면과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기표 :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본격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사회 해계모니적 질서의 위기를 드러냄. 일종의 포퓰리즘적 계기로 작용.
- 그러나 촛불에 나선 시민사회의 요구는 국가의 전면적인 변혁보다는 '정상화'에 가까웠음. 결국 박근혜의 퇴진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이라는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귀결.
- 문재인 기표는 노무현의 후계자이자 '정상적 남성'으로서의 의미를 통해 비어있는 기표로 자리매김.
- 팬덤적 지지 세력은 노무현에 대한 애도와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기억을 통해 문재인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경성적 팬덤 실천을 나타냄.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폴리즘

2. 문재인 기표의 셀러브리티 되기: 노무현의 후계자, 정상적인 남성

- 인터뷰 결과, 문재인은 ‘노무현을 가장 잘 이을 인물’이자 ‘부드러운 노무현’으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회한의 정서와 ‘부채감’이 문재인에게 강하게 투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지 세력은 노무현처럼 문재인을 ‘떠나보낼 수 없’으며 강력한 지지를 통해 문재인을 ‘지키고’, 그에게 퇴임 후의 편안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사적인 차원에서 문재인은 ‘온화하고 선한 남성’ 혹은 ‘정상적인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 김정숙과의 캠퍼스 커플이 된 일화,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등이 그의 온화한 남성성 이미지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 ‘뚝심있는 사람’으로 의미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미에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내 ‘분란’을 정리하고 민주당 세력을 규합한 ‘능력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의 운명』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출판사 '북팔'이 추가로 작업해 트위터에서만 공개하는 일러스트가 인기다. 특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다음은 『문재인의 운명』에 있는 김 여사와의 일화.



그,문이 알고싶다-운명 공식 트위터

@moon_destiny17

아내는 나와서의 연애사(史)를 면회의 역사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경희대에 가게 된 건 오로지 아내를 만나기 위험인가보다고 대답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 - 문재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 p.144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3. 집권 이후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국면 1

- 청와대 - 대안 미디어 - 팬덤 세력의 문재인 연합 구축과 포퓰리즘 실천
- 청와대의 역사 바로세우기 전략과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의 이미지 정치
- 제도권 미디어에 대한 거리두기 전략(직접 소통, 기자회견 최소화), 팬덤 세력의 제도 언론 압박(한경오 담론)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3. 집권 이후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국면 1

- 대안 미디어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적 담론 순환 회로 구축
- 〈나꼼수〉를 이은 〈뉴스공장〉 : 제도권 미디어의 영향력 활용해 큰 틀에서 의제설정 수행. 정치적 담론 투쟁에서의 플레이어 역할. 정치적 사건들을 진영적 구도로 수렴화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일차적 정의자(primary definers)”(Hall et al., 1978)의 역할
-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 폭로와 의혹 제기, 셀러브리티적 재현 수행. 정파적 의제를 선정적으로 재확산.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정치교양 콘텐츠들.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긍정적/교양적 이미지 구축.

문재인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4.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국면 2: '조국 사태'와 등가 사슬의 해체

-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두 번째 국면으로 전환.
-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보수 연합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었고 시민운동세력과 진보 신문 등 개혁 연합의 세력들이 내부적인 분열을 겪음.
- 문재인 정부에 최대 80%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던 시민사회 또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지며 등을 돌림.
- 문재인을 중심으로 모인 개혁 연합은 적폐 세력의 질서위반·불공정성과 대결하고자 했으나, “강남 좌파의 세습 행태”로 비화된 조국 사태가 이러한 전선을 흐트러버림.
- 반대편의 보수적 담론 순환 체계(레거시 - 대안 미디어로 이어지는)의 공세.
- 결과적으로 적대적 전선의 전치에 의해 적폐청산 - 헌정 질서 - 문재인이라는 기표로 불안정하게나마 구축되었던 기존의 개혁적 등가 사슬은 파열됨.
- 이는 셀러브리티 기표와 담론 중심으로 구축된 포퓰리즘적 등가 사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

논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시대에 좌파 포퓰리즘은 가능한가?

- 그러나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라는 조건은 여전히 잔존(유기적인 차원).
- 문재인 이후에도 정치의 메커니즘이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
- 문재인인의 '안티-셀러브리티'로 부각된 윤석열이 별다른 정치적 자본 없이도 당선된 것이 그 사례.
- 낮은 지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은 감정화, 사사화, 드라마화 등의 요소를 통해 손쉽게 대중을 동원해내고, 그들 스스로를 적극적 정치적 주체로서 행위하게 만든다. 덕분에 헤게모니 질서의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변혁 없이도 포퓰리즘이 (비교적) 쉽게 발생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수동혁명적인 상황이다.
- 수동적 혁명
 - 그람시 : 밑으로부터의 위협을 미리 막기 위해 위로부터의 '혁명'이 도입되지만, 대중 계급들은 정치적 주도권을 보유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역사적 사례로서의 수동적 혁명.
 - 수동적 변형, 혁명은 지배집단들이 정치 문제 결정에서 대중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구성도 잘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복과와 연속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선호. 국가 재구성의 범위와 정도를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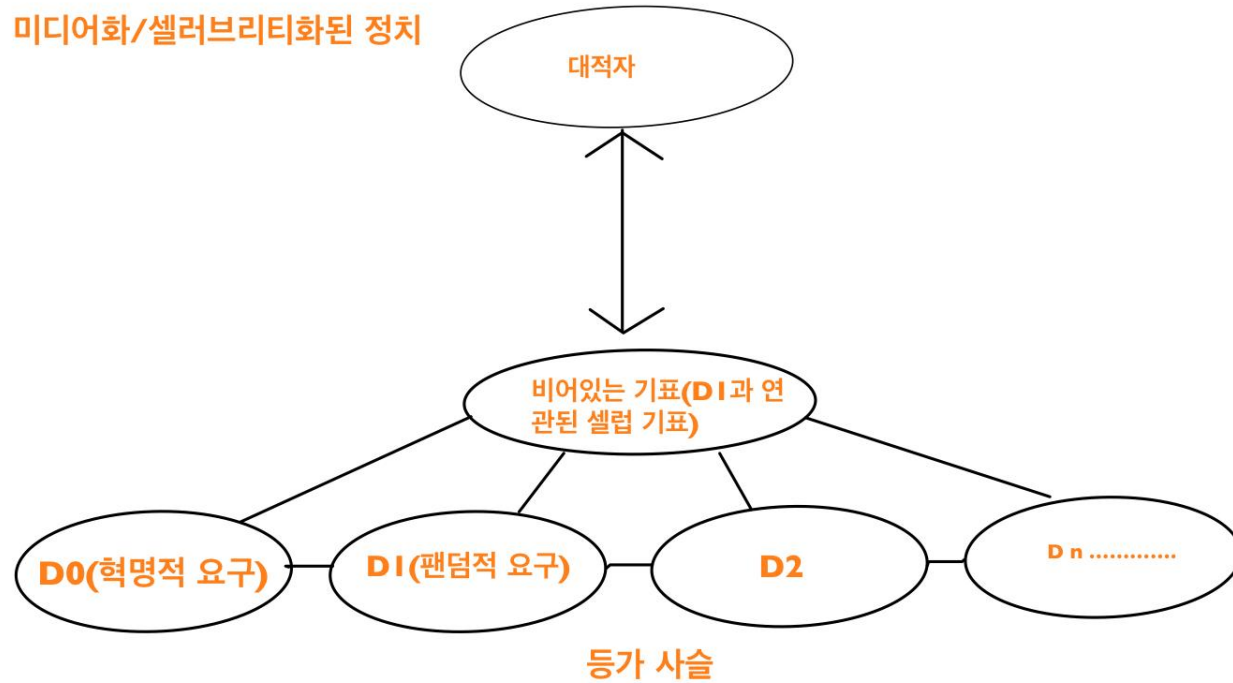
논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시대에 좌파 포퓰리즘은 가능한가?

- 좌파 포퓰리즘 전략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
 - 1) **진영화된 미디어 정치의 효과.** 미디어 정치의 진영적인 논리를 다원적인 정치로 재구성할 기획이 필요. 급진적인 미디어 실천의 중요성.
 - 2) **대중적인 정서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대중을 동원하는 정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포퓰리즘의 성격과 성공 가능성이 달라질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반동적인 후폭풍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함.
 - 3) **대중 동원과 지도라는 문제에 관한 전략적 재고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운동세력에게는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았고 정당에는 직접 참여하여 셀러브리티 정치인의 당내 입지에 도움이 되고자 했으며,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제도권 언론에게는 강하게 반발. 결국, 미디어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내러티브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인식함으로써 내러티브의 주인공인 정치적 셀러브리티들과 정서적으로 일체화되고, 그러한 일체감을 토대로 전략적인 판단과 정세적인 실천을 해내는 주체들이 된 것. 이들은 과연 지도될 수 있는 존재들인가?

한국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미디어화/셀러브리티화된 정치



감사합니다